

여수 돌산 산림·갯바위 훼손, 관리·감독 제대로 했나

시민단체 “특정업체 특혜 의혹 감사해 달라” 청구 여수시의회 “단속팀 신설·경관조례 개정” 요구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돌산읍 소미산 산림과 갯바위 훼손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미산 산림 훼손과 안골전 갯바위 훼손 사태와 관련해 여수시가 특정 업체에 행정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는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행정 조치를 지연했고 불법으로 낸 도로 옆 상업시설의 건축허가 검토를 진행

하는 등 행정 지원을 했다”며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2월 소득 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위해 소미산 정상부에 동백나무 1ha를 심는 다며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폭 3m, 길이 870m 규모의 작업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도로 폭을 10m 넓히고 인가 면적보다 많은 1.73ha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지난해 9월에는 태풍으로 갯바위에 설치한 해안데크가 유실되자 무단으로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갯바위를 훼손해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지난해 소미산 훼손에 대한(업체에) 실질적인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시의회와 함께 전문 복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 자문과 설계를 의뢰했다.

설계 결과 최소 진입 도로(평균 폭 3m)를 제외한 산림에 편백(777주)과 동백 나무(229주) 등 주요 수목을 식재하고 재해 방지를 위한 녹생토(비료 성분이 포함된 인공 토양)와 침사지 설치 등이 포함된 전문 계획이 중점 반영됐다.

시는 산림조합중앙회 설계를 바탕으로 지난 3월 다시 복구명령을 내렸고, 현재 80% 정도 진행된 복구 공사가 오는 6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해부터 A업체에 내린 3차 원상회복 명령 조치와 수차례의 기술자문 회의 등 강력한 행정 절차를 통해 지난 3월 원상회

복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완료한 상태.

앞서 여수시의회도 난개발 조사위원회(위원장 나현수)를 꾸려 3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 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조사 활동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우량농지 허가 건을 제외한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등 52곳에 집중했다. 조사과정에서는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된 만큼 행정선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 다양성을 높였다.

현장조사 과정에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도 투입했고 총 8차례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위 조사결과 소미산 불법 훼손과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과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 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 재해 예방,

주변경관 재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 부서 간 협업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해안 경사지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조례 개정, 도시계획조례 정비,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조경식재 유도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대한민국 명품 ‘광양 매실’ 첫 출하
지난 24일 광양시 옥곡면 광양동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열린 광양 매실 첫 출하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수확한 매실을 들어 보이고 있다. <광양시 제공>

순천 케어안심주택 어르신들 인생 이야기 담은 그림책 펴내

입주 1주년 맞아 아픔·추억 공유

순천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입주 1주년을 맞아 이야기를 담은 인생책을 펴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환으로 운영 중인 케어안심주택은 퇴원 후 회복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7세대가 지난해 7월 입주해 주거·보건의료·건강돌봄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은 인생 8090을 바라보면서 동시대의 아픔과 추억을 공유하며 인생의 긴 여정을 간결하고 소박한 그림으로 표현한 책을 냈다.

책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뜻함,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금의 자신을 격려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담담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책의 공저자인 한 어르신은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다”며 “살다보니 내가 책도 내게 됐다. 책 쓰는 과정을 통해 소중한 가치 있는 나의 여생은 ‘아내, 엄마, 할머니’가 아닌 나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생이 묻어나는 지혜와 삶의 가르침이 자녀와 손자들에게 전해지고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소소한 이야기책을 정기적으로 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가루녹차 멕시코 간다

보성제다 50만달러어치 수출

보성군의 가루녹차가 멕시코 수출길을 열었다.

보성군은 보성제다의 가루녹차 50만달러어치(5억6000만원 상당)를 멕시코 바이어 윈스로미가 수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온라인 비대면 수출상담회에서 이뤄진 계약(사진)으로 수출상담회는 미국, 일본 등 7개국 11명의 바이어와 남해안남중권협의회 소속 8개 시군 25개 업체가 참여했다.

보성군은 차 관련 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녹차, 홍차, 녹차잔 등 차 연관 제품으로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수출대상국 확대, 수출 품목 다양화 등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제다가 진출하는 멕시코는 커피나 탄산음료에 비해 차 판매량이 저조한 편이지만 최근 소비자층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보성군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2019년 멕시코 현지 노스게이트 트레이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차 바이어 및 공장을 방문해 수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 대항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순조

데크시설·쉼터·전망대 새로 설치

곡성군은 대항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항강에는 코스모스길, 물레방아길 등 반구정 습지부터 강 하천습지를 연결하는 2.5km의 생태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군은 주민과 탐방객들이 하천의 생태와 경관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 쉼터, 전망대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들을 개선하고 있다.

생태탐방로 시작점에는 ‘반구정’, 종점에는 ‘탁

사대’라는 명소가 위치하고 있다.

반구정은 ‘갈매기를 뱃삼아 즐기다’라는 뜻으로 원래 물굽이 가파른 곳이었지만 과거 주암댐의 방류량을 고려해 시행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은 소습지로 변모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다.

탁사대는 ‘더러운 것을 두드려 씻어낸다’는 의미로 고려 개국공신인 신승경 장군의 발자국과 말발굽이 찍혀 있다고 전해진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대항강 물길을 따라 걸으며 대항강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